

맨큐의 경제학 따라 읽기 12

부(富)와 불평등

글. 권태혁 아리랑국제방송 기술센터 부장

계몽주의와 부의 역사

부의 창출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모호해지는 경우는 부를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 논쟁이 벌어질 때다. 그런 논쟁들은 태초부터 분배할 만한 부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는 1만 년 전에는 절대적인 부는 존재했지만, 분배를 논할 만큼의 부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분배 논쟁을 할 만한 부는 계몽주의의 발명품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계몽주의는 17세기의 과학혁명과 이성의 시대에서 흘러나왔고 관행상 18세기의 뒤쪽 3분의 2와 일치한다. 과학과 탐험이 일반적인 통념에 도전한 것에 자극을 받고,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을 마음에 새기고, 사상과 사람의 이동이 쉬워진 것에 고취된 계몽 사상가들은 인간의 조건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했다. 사상이 풍요롭게 흘러넘쳤다고 할 만한 시대였다. 어떤 생각은 모순적이었지만, 이성, 과학, 휴머니즘, 진보의 네 가지 주제가 그 계몽적 생각을 하나로 묶었다.

계몽 사상가들은 부의 의미 있는 확대를 이성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이론을 내놓기도 했다. 분석의 출발점은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가가 아니라 애초에 부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가였다.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의 변화를 보면서, 풍족한 양의 유용한 물자는 농부나 장인이 따로따로 일해서는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런 풍족함은 각자가 물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작하는 법을 알고 자신의 재능, 기술, 노동의 결실을 결합하고 교환하는 전문가 네트워크의 분업에 의존한다. 이런 분업은 전문가들이 재화와 용역을 교환할 수 있는 시장에서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은 일종의 호혜적 협력 즉, 포지티브섬 게임이 된다고 스미스는 설명했다. 각자는 자기가 내주는 것보다 자기에게 더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온다. 자발적 교환을 통해 사람들은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남들에게 이익을 준다. 교환은 사회 전체를 더 풍요롭게 만들 뿐 아니라 더 좋게 만든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물건은 훔치기보다 사는 편이 값이 싸고, 타인은 죽었을 때보다 살아 있을 때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에서 부의 증가는 제로... 제로... 몇천 년 동안 반복적으로 제로... 기원후 1년부터 1,000년이 지나도 세계는 예수가 탄생한 때보다 조금도 부유해지지 않았다. 다시 500년이 지나고 소득이 2배로 늘어났다. 가끔 급성장하는 지역도 있었지만, 꾸준하고 점진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9세기부터 소득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1820년과 1900년 사이에 전 세계 소득이 3배 늘었다. 그 후 약 50년이 지나자 세계 소득이 다시 3배 증가했다. 여기에서 3배 더 증가하기까지는 25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또다시 3배 증가하기까지 33년이 걸렸다. 오늘날 세계 총생산은 1820년에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이래로 거의 100배 증가했고, 18세기 계몽주의가 시작된 이후로 약 200배 증가했다. 분배와 성장에 관한 논쟁들은 종종 파이를 나누는 것과 더 큰 파이를 굽는 것을 대비시킨다. 1700년에 분배되던 파이가 표준적 20cm 팬에서 구워진 것이라면, 현재 우리 앞에 있는 파이는 지름 3m가 넘는다.

불평등

하지만 이 모든 부가 부자들에게 가고 있다면? 21세기에 접어들고 20년 가까이 흐르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강박이 되어 가는 시기에 선진국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상위 1%에 속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최근 수십 년간 이런 경제성장의 이점을 모조리 착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간신히 버티거나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사

회의 통념으로 등장했다.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한 부의 폭발적 증가는 더는 칭송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부가 대부분의 인간의 안녕과 복리 전반에 기여한 것을 부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1980년대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서양 국가의 대부분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과 나머지 간의 차이가 극심해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대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로 측정한다. 모든 사람이 완벽히 평등하게 소유한 경우를 0, 한 사람이 모두를 소유한 경우를 1이라고 할 때, 0과 1 사이에서 지니계수의 수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평등한 나라들은 0.25로 나타나고, 남아프리카 나라들처럼 불평등한 경우에 0.7로 나타난다. 불평등의 척도에 포착되는 많은 현상을 중요하게 보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불평등은 분석하기가 매우 복잡한 데다, 너무 많은 사람이 디스토피아적 미사여구에 휩쓸려 버렸고, 너무 많은 사람이 근대성이 인간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표상이 불평등이라고 생각한다.

불평등 다시 보기

인간의 진보라는 맥락에서 불평등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소득 불평등이 인간의 안녕과 복리를 좌우하는 기본 요소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은 부의 증가에 따른 절대적인 인간 삶의 개선이 아니라 타인이나 다른 계층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타인과 상위계층이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 나와 하위계층과 비슷하게 추락했다면 즉, 불평등이 감

소했다면 그들의 부에 대한 질투심이 충족되었을 뿐 누구의 형편도 나아진 것이 아니다.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Harry Frankfurt)에 따르면 ‘불평등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것이 아니며, 반대해야 할 것은 빈곤’이라 주장한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즐겁게 살 수 있다면, 이웃들이 얼마나 버는지, 집이 얼마나 큰지, 차를 몇 대 모는지는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도덕성의 관점에서 볼 때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자가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불평등 자체가 아니라 불평등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 문제라는 것이다.

불평등과 빈곤을 혼동하는 것은 총량 오류, 즉 부는 이미 오븐에 구워진 파이처럼 유한한 자원이므로 제로섬 방식으로 나누어야 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더 적게 갖게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앞에서 살펴봐왔듯이, 부는 그렇지 않다. 산업혁명 이후에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곧 부유한 사람들이 더 부유해졌을 때 가난한 사람들도 더 부유해졌음을 의미한다. ‘21세기 자본’에서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에 따르면 “인구의 가난한 절반은 지금도 예전만큼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1910년에 그랬듯이 2010년에도 전체 부의 5% 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부의 총량은 1910년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가난한 절반이 같은 비율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전보다 더 부유해진 것이지 예전만큼 가난한 것은 아니다. 총량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더 위협적인 결과는 누군가가 더 부유해질 때 그들이 자신의 몫보

다 많은 부를 누군가에게서 훔쳤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조앤 캐슬린 롤링의 소설 해리포터는 4억 부 이상 팔렸고, 영화로 각색되어 많은 사람에게 선보였다. 1억 명의 사람들이 해리포터를 읽고 영화로 즐긴 대가로 10달러씩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롤링은 억만장자가 되었고 불평등은 늘어났지만, 그녀는 책과 영화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소비한 사람들은 즐거움이라는 효용을 얻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롤링이 얻은 부가 노력이나 능력에 대한 당연한 보수라거나, 세상에 문해력과 행복을 전파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어떤 위원회도 롤링이 그 정도로 부유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녀의 부는 그 저작물을 읽고 즐긴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생긴 부산물일 뿐이다.

불평등과 행복

사회학자 조너선 켈리와 머라이어 에번스는 30년 동안 68개국 2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불평등과 행복감을 잇는 인과 관계를 잘라 버렸다. 위의 두 사회학자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주요 요소들, 가령 1인당 GDP, 나이, 성별, 교육, 결혼 여부, 종교 생활 등을 상수로 고정한 결과, 불평등이 불행을 일으킨다는 이론이 팩트로 이루어진 암초에 걸려 난파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개발도상국에서 불평등은 사람들의 기를 꺾는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 주기 때문에 불평등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켈리와 에번스는 가난하고 불평등한 국가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질투심이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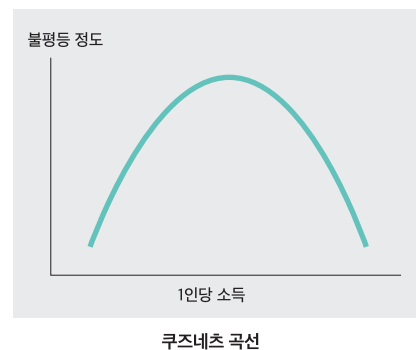
위 불안, 상대적 박탈감은 여하간 희망에 압도되고 만다고 말한다. 불평등을 기회의 징조, 즉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분 상승의 길이 국민과 자식들의 성공을 보장하리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반면에 서구 선진국에서는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든 차이를 낳지 않는다. 즉, 불평등하다고 특별히 불행하거나 불평등이 행복을 가져오는 등의 경향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 공산주의 체제였던 국가에서도 결과는 모호하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라난 구세대에게는 불평등이 나쁜 영향을 미쳤지만, 신세대에게는 도움이 되었거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처럼 불평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 이런 논의를 할 때 자주 혼동하는 문제가 또 있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혼용한다는 것이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뜻밖의 이익이 생겼을 때 중국에는 할당되는 몫이 적을지라도 모두 똑같이 나누기를 선호한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에 불평등 회피(Inequity aversion)라는 이름을 붙였다. 부를 고루 나누고자 하는 심리적 경향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스타먼스, 마크 셰스킨, 폴 블룸은 ‘왜 사람들은 불평등한 사회를 선호하는가’라는 최근 논문에서 그 연구를 다시 살펴본 뒤에, 실험 참가자나 국민이나 모두 분배 방법이 공정하다고 느낀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밝혀냈다. 사람들은 국가가 능력을 중시한다고 느끼는 한 경제적 불평등을 받아들인다. 다만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분노한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평등의 존재보다는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더 크게 다가서는 듯 보인다.

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은 인간의 안녕과 복리를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며, 불공정이나 빈곤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불평등과 쿠즈네츠 곡선

사회가 많은 부를 창출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가장 부유한 사람과 가장 가난한 사람 간의 차이인 절대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상적인 몫을 나눠주는 소득분배청이 없는 상황에서는 운이나 능력, 노력 여하에 따라 누군가는 남들보다 새로운 기회를 더 잘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편중된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지니계수 혹은 소득 점유율로 측정하는 불평등인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매우 큰 현상이다.



경제학자 사이먼 스미스 쿠즈네츠(Simon Smith Kuznets)의 가설에 따르면 나라가 부유해지면 국민은 불평등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농사일을 그만두고 급료를 더 많이 주는 일을 찾아 농촌을 떠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농촌에 남아 가난한 채 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이 발전하는 경제에 휩쓸리면서 불평등은 다시 감소하고 뒤집힌 U자 모양을 그린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발전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면 불평등이 감

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에 따라 뒤집힌 U자 곡선을 그리게 되는 이 불평등 곡선을 쿠즈네츠 곡선이라 한다.

산업혁명 시기에 유럽 국가들은 증기의 힘을 빌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일찍 보편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탈출에 성공했다. 그 뒤 세계화가 진행되고 부를 창출하는 노하우가 전파되면서 가난한 국가들이 유럽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거대한 수렴을 만들어 냈다. 우리는 아시아 국가의 GDP가 급부상할 때 극빈 상태로 사는 사람의 비율과 그 수가 급감할 때, 세계의 불평등이 감소한다는 징후를 확인한 바 있다.

평등주의 혁명

한 나라에서 공감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포용할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아둔 자원 즉, 정부의 재정의 일부분을 점점 더 많이 빈곤퇴치에 할당한다. 그 자금은 어딘가에서 나와야 한다. 법인세나 소비세, 국부펀드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로 누진적 소득세에서 나온다. 많은 소득의 사람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 손실액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상위층의 부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목표가 최하위층을 끌어올리는 것이지, 최상위층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자본주의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냉담하다고 비난하는 이들은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가 얼마나 빈민구제에 돈을 적게 썼는지 아마 알지 못할 것이다. 빈민구제에 사용할 절대적인 의미에서 부가 부족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갖고 있는 부의 일부를 할애했다. 하지만 극히 작은 부분이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 국가들이 빈민구제, 교육, 사회보장에 쓴 돈은 평균적으로 GDP의 1.5%였다.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의 경우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제 현대 사회는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건강, 교육, 연금, 소득 지원에 쏟는다. 이것을 평등주의 혁명이라고 부르며 불평등을 퇴치하는 진보의 사례 가운데 하나로 거론하기도 한다. 국가의 사회지출은 20세기 중반에 급증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사회지출은 평균적으로 GDP의 22%를 차지한다. 사회지출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정부는 자신의 임무를 재정립했다. 영토를 수호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보살피는 것이 추가되었다. 사회지출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든 아니든 간에, 불평등 감소는 사회지출이 만들어 낸 결과 중 하나이며, 사회지출이 증가한 것은 지니계수가 감소하게 된 원인을 일정부분 설명해 준다.

우리는 나아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은 인류가 퇴보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부의 증가가 역전되어 소득이 감소하는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지 않다. 20세기 초 러다이트 운동과 유사하게 로봇을 부수자거나, 이민자가 들어오는 길을 막자거나, 사회주의로 체제를 바꾸자거나, 1950년대로 돌아가자는 부르도 아니다. 이제 불평등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요약해 보자.

불평등은 빈곤과 다르고, 인류의 번영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도 아니다. 전 세계 각국의 행복감을 비교해 볼 때 불평등은

부의 총량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불평등의 증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회가 보편적 빈곤에서 탈출할 때는 더 불평등해지기 마련이며, 새로운 부의 원천이 발견될 때마다 불평등의 물결은 다시인다. 불평등의 축소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들은 전염병,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 격렬한 혁명, 국가의 붕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계몽주의 시대부터 시작된 역사의 장기적인 추세는 모든 사람의 부가 증가하는 것이었다. 현대 사회는 막대한 부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향상하는 일에 그 부를 점점 더 많이 할당하고 있다.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며 세계적으로 중간층이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 지니계수도 감소했고, 동시에 분석력, 창의력, 재력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들도 부유해졌다. 선진국의 저소득층이 가진 부는 그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형편이 개선되어왔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위 계층으로 이동했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사회지출과 더불어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의 품질이 향상되어 가격이 낮아진 것도 이 경향에 박차를 가했다. 여러모로 세계는 덜 평등해졌지만, 그것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있는 것이다. 